

# 30년 화가 인생을 돌아보며

### 한국화가 임효...13일까지 한가람미술관서 전시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뜻으로 품 천수경> 한·영문판인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의 삽화작업을 맡았던 한국화가 임효(57)씨가 개인전을 연다.



임효 작가

3월 1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여는 이번 전시는 60세를 앞둔 임효 작가가 실험성 강한 청년작가 시절의 화업(畫業)을 마감한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어린 시절 각종 사생대회의 상을 휩쓸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 임효 작가는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교시절 무작정 상경했다.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그는 금남여중 미술교사로 3년 동안 일하다 그만두고 이대역 주변에 미술 학원을 차려 큰돈을 벌었다.

1995년부터 도판 표면에 한지원료를 압착시킨 부조판화를 선보인 작가는 압인한 한지원료 위에 다시 채색을 함으로써 입체감을 강화한 독특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린다기' 보다는 '만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시각적인 면보다 촉각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작업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1988년 전업작가로 변신했다. 학원 경력을 통해 번 돈으로 유럽 미술 여행을 떠났다. 임 작가는 스페인에서 고야의 '거인'을 보고나서 귀국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이때 임효 작가는 주로 7~8m짜리 대형작품을 그렸다. 두어번 전시를 하고 나니 그동안 벌여 놓은 돈이 다 떨어졌다. 목동에 집까지 장만했던 그였지만 집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기 광명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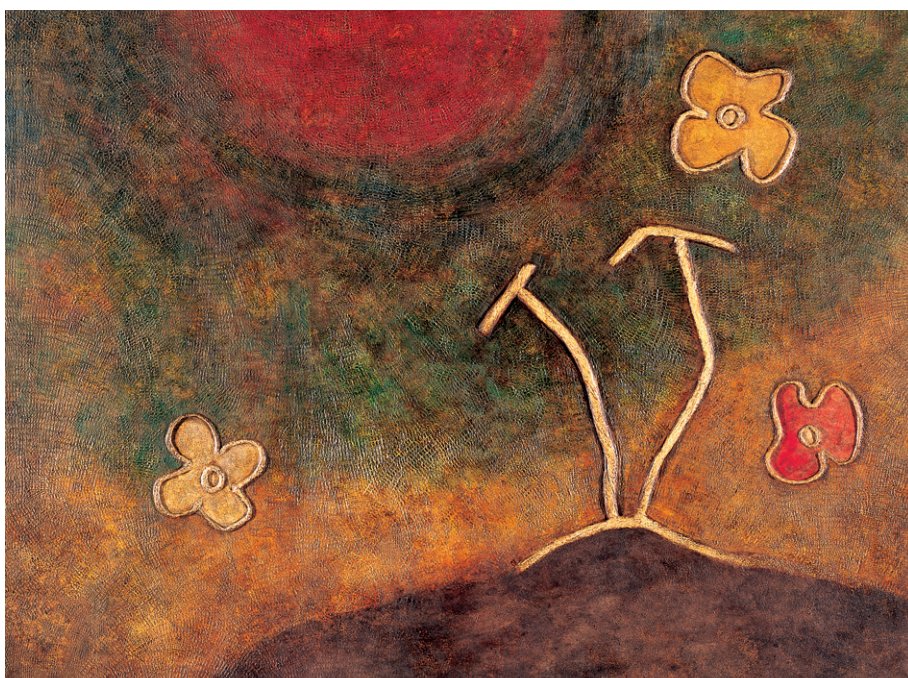
1995년부터 도판 표면에 한지원료를 압착시킨 부조판화를 선보인 작가는 압인한 한지원료 위에 다시 채색을 함으로써 입체감을 강화한 독특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린다기' 보다는 '만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시각적인 면보다 촉각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94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다. 유엔 에스캡(UN ESCAP·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정부 간 고위급회의) 건물에 들어갈 작품으로 그의 작품 '일월도'를 넣자고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지금도 태국 방콕의 유엔 에스캡 건물 로비에 걸려 있다.

몇 년이 흐른 뒤 임효 작가는 수목 재료를 활용한 '생성과 상생'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2000년대 선보인 작품에서 임 작가는 재료와 채색, 아크릴, 석채 구분없이 마음속의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2009년 독일로 그림공부를 떠난 그는 함부르크에서 1시간 거리의 메를렌부르크주바드 도버란의 레지던스에서 그림을 그리며 추운 겨울을 보냈다. 폭설이 내려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그의 작업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2009년 독일로 그림공부를 떠난 그는 함부르크에서 1시간 거리의 메를렌부르크주바드 도버란의 레지던스에서 그림을 그리며 추운 겨울을 보냈다. 폭설이 내려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그의 작업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동반자 218×290cm 수채화지, 수묵, 석채, 옷칠 2012

임효 작가를 안쓰럽게 여긴 레지던스 주인은 매일 그의 식탁에 서양란 한 송이가 담긴 화병을 올려놓았다.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낯선 땅에서 고독과 싸우던 작가가게 안주인의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꽃은 그의 작품 '교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리츠 등으로 이어졌고 형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담아내려니 작업도 추상으로 옮겨갔다. 손수 만든 한지에 옷칠을 하기도 했다.

"모든 것을 걷어내고 저의 내면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본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외로워 문득 쳐다본 하늘은 바로 고향 하늘이었어요."

이번 전시에서 임효 작가는 2009년 독일로 그림공부를 떠났을 때 경험한 교감과 내면 세계를 담아낸 '하늘' 시리즈와 추상작업 '연기' 시리즈 등 화폭 2~3m의 대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임효 작가는 "타향에서 본 하늘과 달에서 우리 삶의 애환도 다 하늘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임효 작가는 2009년 독일로 그림공부를 떠났을 때 경험한 교감과 내면 세계를 담아낸 '하늘' 시리즈와 추상작업 '연기' 시리즈 등 화폭 2~3m의 대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독일에서 시작된 교감과 내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늘' '연기(緣起)' 시

리즈 등으로 이어졌고 형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담아내려니 작업도 추상으로 옮겨갔다. 손수 만든 한지에 옷칠을 하기도 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상월쇄봉 선사 '솔바람이 밤의 현을 울리다. [松風鳴夜絃]

## 달만 하늘에 떠 있네

潤瑟誰彈曲 (윤슬수탄곡)  
松琴自奏絃 (송금자주현)  
鐘期何處在 (종기하처재)  
惟有月當川 (유유월당천)

시내 비파 누가 곡조 빙기나  
솔 비파 스스로 현을 연주하네.  
종자기 어느 곳에 있는고  
달만 하늘에 떠 있네.

조선 상월쇄봉(霜月朔封; 1687~1767)스님은 평소 후학들에게 유가와 석가의 구별이 없으니 안팎의 학문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실다운 마음과 실다운 행으로 치문들의 의지처가 되었고 문도들은 스님의 지혜와 덕을 취해 평진(平眞)이라 칭했다.

고요 종자기는 달이다. 달빛이 창호를 흰하게 밝히는 야반, 고요 속에 울려오는 솔바람 소리는 무겁게 일렁거리며 후끈 달아오르는 생각의 꼬리를 베어버리는 날 선 칼날이다. 이날 스님은 한 경계의 문을 부수 버린 것은 아닐까? 그 기쁨을 알아주는 이를 기다리는 간절함인지도 모르겠다.

겨울바람이 부는 날, 솔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들리는 것은 산사의 심상한 일이다. 찬 달이 하얗게 비치는 밤이면 더욱 그러하다. 스님은 특히 이 밤, 이 자연의 울림이 아까웠다 보다. 야! 이 울림[鳴]. 분명 백아가 타는 거문고 소리일레라. 갑자기 종자기를 생각한 다. 백아는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더 이상 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밤 백아가 연주한다. 그렇다면 분명 종자기가 있을 것이다. 스님은 종자기를 찾는다. 울거니! 바로 저 하늘에 등실 걸려 있는 달이로구나. 저 달은 곧 스님 자신이다. 백아가 타는 거문고 소리를 알아듣는 자신은 이미 종자기이다. 솔바람은 백아의 거문

시냇물 소리와 솔바람소리가 더욱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음(無音)의 달빛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달빛이 더욱 고요하고 맑은 빛을 발하는 것도 시냇물 소리와 솔바람소리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깨닫는 데 전부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 서로가 있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우러짐' 때문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깨닫는 데 전부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 서로가 있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우러짐' 때문이기도 하다.

원법 스님(운문사 종강·조계종 교수아사리)

## 법정 스님 생각하며 지은 노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음반 발매...9일 공연



불교적 정서가 담긴 노래를 발표해온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법정 스님의 글을 노랫말로 담아낸 음반 <무소유의 노래>를 발표했다.

문태준 시인들의 작품에서 따온 노랫말들도 가득하다.

<무소유의 노래>에는 가수 겸 작곡가이자 시인인 김현성(사진) 씨가 법정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를 비롯해 <아름다운 마무리> <홀로 사는 즐거움> 등의 책을 읽고 노랫말을 만들어 곡을 붙인 노래 12곡이 수록됐다. 특히 '홀로 사는 즐거움'의 가사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노랫말을 직접 보고 허락해 만든 노래라 더욱 의미가 깊다.

김현성 씨는 <이등병의 편지> 등으로 KBS아름다운 노랫말 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서정적이며 의미 있는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무소유의 노래>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이 3월 9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법정, 나를 물들이다>의 저자 변택주씨가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이번 앨범에는 가수 김현성 씨가 직접 지은 가사 뿐 아니라 정호승, 도종환,

(02)2052-5988 이나는 기자

## 경주 화강암에 새긴 聖과 性

### 오채현 조각가 3월 12일까지 개인전

성모마리아를 조선 여인으로 묘사한 조각을 세계 가톨릭 본산인 로마 바티칸으로 보내 눈길을 끌었던 조각가 오채현이 서울 청담동 'Able Fine Art NY Gallery Seoul'에서 개인전을 연다.

사실 오채현 조각가 2005년 보낸 한국적 성모자상도 가슴을 드러내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조선 여인의 모습이었다. 때문에 근엄한 종교계에서 작품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성모상과 여인상은 세속적인 음란함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오히려 예의 그 평온함이 가득하다.

'Saint and Sex'를 주제로 3월 12일까지 전시를 여는 작가는 기존의 합박 웃음을 짓는 호랑이, 천진난만한 표정의 불상 등의 표현을 탈피한 과격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자리를 벌린 채 음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여인상과 간다라적인 풍취가 물씬 풍기는 부처조각도 고정관념을 부순다.

오채현 조각가는 "성(sex)은 인도 밀교에서 말하는 탄트라, 즉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성"이라며 "유교적 관습과 종교적 근엄함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오채현 조각가는 화강암에 새긴 불상

도 있지만 구도자가 고된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나 쾌락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성찰과 깨달음을 향한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음이 느껴진다.

작가는 경주 화강암 특유의 질감과 색에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길을 입혔다. 그의 조각들은 성(聖)과 성(性)이라는 무거운 선입견에 가득 차 긴장한 우리를 피식 웃게 만든다.

밀교적 입장에서 수행은 이질감이 들기에 충분하지만 오 작가의 작품에서는 자

경북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 미술 아카데미 조각과를 졸업한 오채현 조각가는 종교인이 아니면서 종교 작품을 만든다. 지극히 한국적인 작품만을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놓치고 있던 본질을 그의 작품을 통해 깨닫는다. 그는 자신만의 조각을 통해 고상한 종교가 아닌 우리 생활에 녹아있는 종교와 터부시되는 성이 아닌 인간 모두의 근원의 성을 작가만의 색깔로 풀어내고 있다.

(02)546-3057 이나는 기자

대원공덕성취케하는 상서로운 팔길상다라니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이루게하는 제불보살 자비손과 제천선신 오희, 대천세계 항마조복, 문수보살 멸정업, 보현보살 멸죄, 관세음보살 멸업장, 선망부모 왕생정도, 해원결, 보시주은, 친족화합, 몸 속의 모든 병고소멸, 제병퇴치, 재물은 부족함이 마음대로 얻어지는 여의주인 팔길상다라니 액자를 걸어두는 곳에는 모든 공덕성취, 일체공덕 회향, 사대강건 육근정정이 절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길상(八吉祥)다라니는 티벳불교와 밀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덟가지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범륜, 범라, 일산, 산개, 금어, 보병, 연화, 인연의 문양고리를 합쳐 만들어진 부처님의 장엄 법구입니다.

사찰 불법력 성취원할 때 · 불사 신도번창을 발원할 때  
사업, 장사 성공을 기원할 때 · 재물은,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랄 때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랄 때 · 부부가 화목, 가정이 평안길 원할 때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길 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 완치되기를 바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만하고 뒤송할 때

사이즈 | 가로 26cm x 세로 33cm x 두께 3cm, 제조원 | 티벳, 수입처 | 룡다원, 가격 | 180,000원(사할스님 20%할인)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14 전화 010-4233-7099

음마니반에 흥 열꽃  
운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오!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운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 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효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운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련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운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활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운장대 사이즈 | 높이 17x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x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할스님20%할인)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14 전화 010-4233-7099